

인터뷰 하재인 포천시 초중고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지역사회와 교육전체 발전 도모해야

포천시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2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학교 운영과정에 동참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설치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시읍 읍면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5월9일 포천관내 53개 학교 운영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협의회장으로 하재인 포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하재인 협의회장으로부터 앞으로 포천시 초중고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직은?
포천시 초중고운영위원협의회는 회장과 각 권역별 회장, 감사, 총무 등으로 구성됐다. 권역별로는 분기별로 1회 모임을 갖고 정 보고환을 하고 협조업무를 의논하게 된다. 제1권역은 포천일고 박용구 회장, 제2권역은 추산초 안경희 회장, 제3권역은 영북초 이재수 회장, 제4권역은 일동초 구광식 회장, 감사 영중중 이주환 위원장, 총무 송우초 홍성철 위원장, 동남중 박삼미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역할은?
학부모위원의 역할은 7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교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욕을 가져야하고 둘째,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셋째, 건전한 교육관을 가져야 하고 넷째, 학교장의 이종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다섯째,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변해야 하며, 여섯째, 학운위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 개인 자격이 아닌 학부모들의 대표 자격임을 유념해야 하고 일곱째, 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별한 계획은?
운영위원 중에 학교장 출신이

3분 계산이다. 이분들의 학교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학교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위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포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운영위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10년의 역사를 거치며 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 학교는 민주적 운영과 지역적 특성 및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상당부분 이루었다. 아직도 임시제도라는 커다란 압초 위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및 교육전체의 발전을 위해 고민과 대안제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모내기 현장 '참(站)나르기'

군내면사무소 농촌 일손돕기 지원

군내면사무소는 5월11일부터 5월 23일까지 면사무소 직원들이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쉬는 시간에 '막걸리, 음료수' 등을 함께 나누면서 농촌 일손돕기 및 고생하는 농민들에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면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모내기 현장 참 나르기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농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장 및 1농가가 5만평 이상 경작을 하는 대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이장에 대하여는 리별 담당공무원이 대농가에 대하여는 면장이 직접 참나르기를 실시했다.

군내면 명산리 이모 농업인은 "너무나 바쁜 모내기 농번기에 심신이 모두 피로한데 면장 등 공무원이 찾아와 격려해 주시고 마운 마음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며 즐거워했다.

군내면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참나르기를 통해 공무원들이 영농현장을 체험하고 옛 농촌 모습이 재현되었으며,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님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 시켰으며, 공직자와 주민간에 유대강화 및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어버이날 합동 칠(팔)순 잔치

선단동, 독거노인과 분도마을 입소 어르신 80여명 초청



포천시 선단동(동장 이수한)과 선단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섭)는 "Together Happy 선단 구원 차원에서 5월 10일 제35회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에 그동안 가족들이 없이 홀로 살아오고 계신 독거어르신과 분도마을노인요양원의 입소 어르신 등 80여명을 초청해 2007년도 합동 칠순 및 팔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선단동주민자치위원과 각 마을의 통장, 그리고 선단사랑 봉사원 들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놓고 점พล의례에 의거 잔과 절을 올림으로써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훈훈한 이웃사랑과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자리가 되어 우리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효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때 우 뜻깊은 자리가 되어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아울러 이날 준비한 음식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에서 급식차를 지원한 가운데 선단 사랑적십자봉사회(회장 김순자)에서 봉사원들이 이를 전부터 직접 모든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독거어르신과 모든 참석자들에게 차려드리기도 했다.

2부 행사인 축하연에서는 순수 봉사자에 의한 국악한마당 공연과 한마음 노래자랑 등을 통해 흥겨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여 행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한마당 이야기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

인생사, 새옹지마라 했지요.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 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던낸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 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 우물을 메워 갔다. 당나귀는 더욱 더 울부짖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웅덩이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발 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

용해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정말 그렇다.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던진 비방과 모함과 굴욕의 흙이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

남이 진흙을 던질 때 그것을 털어 버려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곤경의 우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 수 있는 날을 맞게 된다.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삶에는 거꾸로 된 거울 뒤 같은 세상이 있다. 불행이 행이 되고, 행이 불행이 되는 새옹지마(塞翁之馬)의 변화가 있다.

우물 속 같이 절망의 극한 속에서 불행을 이용하여 행운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다. 우물에 빠진 당나귀처럼 남들이 너를 해칠지라도 두려워 말 일이다.

인생사, 새옹지마 라 했지요. 어떤 상황에서건 낙심치 마시고 불행을 행으로 바꾸시는 승리하는 남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글 중에서] (문의 011-342-5834)

*용경자의 세상읽기 6

늦둥이의 돌잔치

여자는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학창시절 절친했던 언니가 늦둥이를 낳아 돌잔치를 하니 오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뜨겁던 캠퍼스 2년, 그 후로 20년이 지났건만 그 시절의 추억은 보고 싶은 얼굴과 함께 나를 설레게 했다.

그때는 서로 시기도 했었고 질투도 했었지만 반가움에 꼭 잡은 두 손은 뜨거운 열기와 힘이 넘쳤다. 문득문득 생각은 낫지만 모두가 결혼해서 바쁜 일

상 속에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주부 학부모 등 똑같은 이름으로 살아왔기에, 그리고 가슴 뜨겁게 함께 했었던 2년간의 캠퍼스 추억이 있었기에 우리는 끝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늦둥이를 낳은 기념으로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가슴 뿌듯 해 하는 늦둥이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는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식당 예약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뜨거운 악수와

포옹을 했다.
뒷모습을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서로 먼저 가라며 인사만 여러 번 되풀이 했다. 조만간 다시 만나 못다한 얘기를 나누어야 했다.

오십, 육십이 되어서 오늘의 생활이 소중하 추억이 되리란 생각에 주변의 지인들이 새삼 그려진다. 지금까지 쌓아온 추억에 조금 더 멋진 추억을 만들며 살다보면 10년, 20년 후엔 풍성한 추억으로 행복하리란 생각을 하며 입가에 미소가 머문다.



시인의窓 풀어진 마음

강 돈 희(시인, 시사량낭송회장)

우수가 지나면
풀리는 것이
대동강 물만은 아니다

말이 학교 쉬는 날
휴일처럼 맑은 토요일 아침
느긋해진 마음이 늦잠을 부른다

(감상노트)

사람이 자연에 속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간의 초심이란 투영된 모양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대화 내지는 반사적 율동을 통하여 확인케 되는 반복된 학습의 형상이다. 물론 신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사람은 결코 자연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며 반드시 함

내친감에 아예 하루를 쉰까
강렬한 유혹이 고개를 들지만
그래선 안 되지 스스로 다짐해 보는

휴일 같은 토요일 아침
우수가 지나자
마음까지 풀여지고 있었다

깨 살아가야 할 천부적 관계이다. 자연과의 화목한 통로를 넘어서 훗날 인간은 예전의 오르기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봄이 오는 뒷동산 양자쪽에 앉아 보라, 얼마나 황홀한가.

안 익 수(시인)

안전운행은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새마음 · 새출발로 안전운행을 약속하는 새 포천고속관광(주)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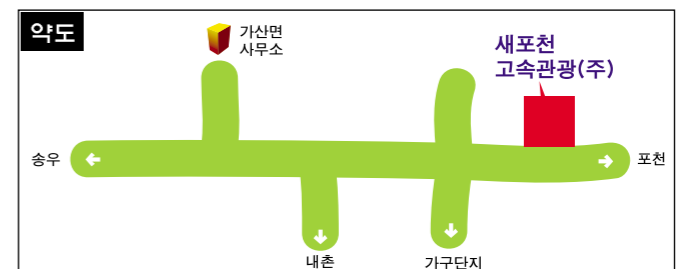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25인승 · 35인승 · 45인승

✓효도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문화재답사

예약문의 031) 544-8888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